

과목코드	문항 수		제 2학년 1학기 국어과 중간고사	결	계	교무	교감	교장
01	선택형	서답형		재				
	25	5	2017년 4월 27일 1교시	출제교사	조병욱, 이인원			

※ 선택형 25 문항 = 80점(문항별 배점 명시)
서답형 5 문항 = 20점(문항별 배점 명시)

계 100점

※ 1번 ~ 25번까지는 선택형 문제입니다. 문제를 잘 읽고 알맞은 답을 O.M.R 카드의 해당란에 표기하십시오. 서답형 1번~5번은 서답형 답안지에 표기하십시오.

[선택1~6, 서답1~2] 다음 시를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꽃이 피네 한 잎 한 잎
한 하늘이 열리고 있네

마침내 남은 한 잎이
㉠마지막 떨고 있는 고비

바람도 햇볕도 숨을 죽이네
나도 그만 눈을 감네.

(나) 열무 삼십 단을 이고
시장에 간 우리 엄마
안 오시네, ㉡해는 시든 지 오래
나는 □□처럼 방에 담겨
㉢아무리 천천히 숙제를 해도
엄마 안 오시네, 배춧잎 같은 발소리
타박타박
안 들리네, 어둡고 무서워
금 간 창틈으로 고요히 빛소리
빈방에 혼자 엎드려 훌쩍거리던

아주 먼 옛날
㉣지금도 내 눈시울을 뜨겁게 하는
그 시절, 내 유년의 율목

(다) 나는 나룻배,
당신은 행인.

당신은 흙밭로 나를 짓밟습니다.
나는 당신을 안고 물을 건너갑니다.
나는 당신을 안으면 깊으나 얕으나 급한 여울
이나 건너갑니다.

만일 당신이 아니 오시면, 나는 바람을 쐬고
눈비를 맞으며 밤에서 낮까지 당신을 기다리
고 있습니다.

㉤당신은 물만 건너면 나를 돌아보지도 않고
가십니다그려.

그러나 당신이 언제든지 오실 줄만은 알아요.
나는 당신을 기다리면서 날마다 날마다 낡아
갑니다.

나는 나룻배,/ 당신은 행인.

1. (가)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3.1점)
 ① 시적 화자는 ‘나’다.
 ② 이호우가 쓴 자유시이다.
 ③ 탄생의 신비함을 노래했다.
 ④ 대상을 섬세하게 관찰하고 있다.
 ⑤ 꽃이 피어나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

2. (나)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3.5점)
 ① 독백과 회상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② 가난했던 어린 시절의 기억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③ 시적 화자는 엄마를 걱정하며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
 ④ 상황의 제시를 통해 심리를 섬세하게 묘사하고 있다.
 ⑤ 혼자 있는 아들을 걱정하는 엄마의 마음이 잘 드러나고 있다.

3. (다)의 성격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2.8점)
 ① 비유적 ② 회상적 ③ 향토적
 ④ 남성적 ⑤ 절망적

☞ 뒷면에 계속

4. ㉠~㉣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3.1점)

- ① ㉠ 생명 탄생을 앞둔 긴장된 순간임.
- ② ㉡ 열무가 시들 정도로 시간이 많이 지남.
- ③ ㉢ 숙제가 너무 어렵기 때문임.
- ④ ㉣ 외로웠던 어린 시절을 생각하며 안타까움을 느낌.
- ⑤ ㉤ 당신의 무심한 태도가 나타남.

5. 시(나)를 <보기>와 같이 바꾸어 썼을 때, <보기>의 특징으로 알맞은 것은?(3.3점)

<보기>

외로이 방에 남아/엄마 기다릴 우리 아들.
 해는 저무는데,/떡구름 보이는데,
 나는 아직 시장 한구석.
 아침에 이고 온 열무 삼십 단,
 팔고 남아 두어 단.
 속은 비어 힘들어도/소리 한 번 더 높이네.
 열무요, 떨어요!
 우리 아들 밥해 주게/열무요, 떨어요

- ① 공간적 배경은 아이가 있는 방이다.
- ② 시의 분위기가 더욱 외롭고 어두워졌다.
- ③ 시적 화자가 ‘아들’의 시각에서 표현하였다.
- ④ 고생하는 엄마를 걱정하는 아들의 따뜻한 마음이 잘 나타난다.
- ⑤ 아들을 잘 키워 내려는 엄마의 희망과 의지가 드러나 있다.

6. ‘시적 화자’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2.9점)

- ① 시에서의 시적 화자는 말하는 이를 가리킨다.
- ② 시에서의 화자를 소설에서는 서술자라 한다.
- ③ 시적 화자가 누구인가에 따라 시의 내용과 분위기가 달라진다.
- ④ 시에서 시적 화자는 시인과 항상 비슷한 인물로 나타난다.
- ⑤ 시인은 자신의 의도를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시적 화자를 선택한다.

《서답형 1》 시(나)의 □□은/는 무서움에 떨며
 엄마를 기다리는 자신의 서글픈 처지를 드러
 내는 시어이다. 알맞은 말을 쓰시오.(3점)

《서답형 2》 시(다)는 입에 대한 사랑과 헌신
 을 통해 시인의 자신의 굳은 믿음과 의지를
 드러낸 시이다. 일제강점기 때의 승려이자 독
 립운동가로서 자신을 돌보지 않고 독립운동에
 헌신했던 이 시인의 이름을 쓰시오.(3점)

[선택7~12, 서답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오늘도 또 우리 수탉이 막 쪼아었다. 내가
 점심을 먹고 나무를 하러 갈 양으로 나올 때이
 었다. 산으로 올라서려니까 등 뒤에서 푸드덕,
 푸드덕 하고 닭의 헛소리가 야단이다. 깜짝 놀
 라서 고개를 돌려 보니 아니나 다를까, 두 놈이
 또 얼리었다. ㉠점순네 수탉(은 대장이가 크고
 푹 오소리같이 실뽀하게 생긴 놈)이 덩저리
 작은 우리 수탉을 함부로 해내는 것이다. 그
 것도 그냥 해내는 것이 아니라 푸드덕 하고 먼
 두를 쪼고 물러섰다가 좀 사이를 두고 또 푸드
 덕 하고 모가지를 쪼았다.

(나) 나흘 전 감자 쪼간만 하더라도 나는 저에
 게 조금도 잘못된 것은 없다. 계집애가 나물을
 캐러 가면 갔지 남 울타리 엮는 데 ㉡쟁이질을
 하는 것은 다 뭐냐, 그것도 밭소리를 죽여 가지
 고 등 뒤로 살며시 와서

“애! 너 혼자만 일하니?”

하고 긴치 않는 수작을 하는 것이었다.(중략)

㉢ “그럼 혼자 하지 때루 하디?”

내가 이렇게 내배알는 소리를 하니가

“한여름이나 되거든 하지 벌써 울타리를
 하니?” 잔소리를 두루 늘어놓다가 남이 들
 을까 봐 손으로 입을 틀어막고는 그 속에서
 깔깔댄다. 별로 우스울 것도 없는데, 날씨가
 풀리더니 이놈의 계집애가 미쳤나 하고 의
 심하였다.

☞ 다음 장에 계속

(다) 나는 약이 오를 대로 다 올라서 두 눈에
서 불과 함께 눈물이 펑 쏟아졌다. 나무 지게도
벗어 놀 새 없이 그대로 내동댕이치고는 지게
막대기를 뺄치고 허둥허둥 달려들었다. (중략)

나는 대뜸 달려들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큰
수탉을 단매로 때려 었었다. ㉠닭은 폭 었어진
채 다리 하나 꺾 못하고 그대로 죽어 버렸
다. 그리고 나는 멍하니 섰다가 점순이가 매섭
게 눈을 홉뜨고 닥치는 바람에 뒤로 벌렁 나자
빠졌다.

(라) 이렇게 되면 나도 다른 배차를 차리지 않
을 수 었었다. 하루는 우리 수탉을 붙들어 가지
고 넌지시 장독께로 갔다. 씹닭에게 고추장을
먹이면, 병든 황소가 살모사를 먹고 용을 쓰는
것처럼 기운이 뻗친다 한다. 장독에서 고추장
한 접시를 떠서 닭의 주둥아리께로 들이밀고
먹여 보았다. 닭도 고추장에 맛을 들였는지 거
스르지 않고 거진 반 접시 톱이나 곧잘 먹는다.

(마) 그리고 뒷에 떠다밀렸는지 나의 어깨를
짚은 채 그대로 펑 쓰러진다. 그 바람에 나의
몸뚱이도 겹쳐서 쓰러지며 ㉡한창 피어 퍼드
러진 노란 동백꽃 속으로 폭 파묻혀 버렸다.
알싸한 그리고 향긋한 그 내음새에 나는 땅이
꺼지는 듯이 온 정신이 고만 아찔하였다.

“너, 말 마라.”

“그래!”

조금 있더니 요 아래서 “점순아! 점순아! 이년
이 바느질을 하다 말구 어딜 갔어?” 하고 어딜
갔다 온 듯싶은 그 어머니가 역정이 대단히 났
다.

7. 이 글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
은?(3.1점)

- ① 전지적 작가 시점이다.
- ② 1930년대의 단편소설이다.
- ③ 농촌을 배경으로 한 소설이다.
- ④ 비속어와 사투리가 사용되었다.
- ⑤ 현재의 이야기에 과거가 삽입되어 있다.

8. 이 글의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3.2점)

- ① ‘나’는 이 글의 주인공이며 서술자이다.
- ② ‘나’가 자신의 생각과 심리를 자세하게 묘
사한다.
- ③ ‘나’는 점순이의 속마음을 잘 알면서도 모
른 척 한다.
- ④ 점순이는 ‘나’가 자신의 호의를 거절하자
화가 났다.
- ⑤ ‘나’는 계속 닭싸움을 거는 점순이에게 복
수하기 위해 우리 닭에게 고추장을 먹였다.

9. 글(나)가 재미있게 느껴지는 이유로 알맞은
것은?(3.3점)

- ① 마름과 소작농의 신분 관계 때문에
- ② 점순이가 쓸데없는 말을 반복하므로
- ③ 강원도 사투리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 ④ 등장인물이 점순이와 ‘나’로 한정되어 있
기 때문에
- ⑤ 적극적인 점순이와 어리숙한 ‘나’의 대조
적인 모습 때문에

10. 이 글을 사건이 일어난 순서대로 나열한 것
은?(3.5점)

- ① (가)-(나)-(다)-(라)-(마)
- ② (나)-(가)-(다)-(라)-(마)
- ③ (나)-(다)-(가)-(마)-(라)
- ④ (나)-(라)-(가)-(다)-(마)
- ⑤ (라)-(나)-(다)-(가)-(마)

11. 아래에 사용된 낱말의 쓰임이 바르지 않은
것은? (2.7점)

- ① 정호는 실직한 생김새에도 불구하고 자주
아팠다.
- ② 아버지는 따끈따끈한 윗목에 지친 몸을 눕
히고 계셨다.
- ③ 철호의 작은 주먹이 암팡스레 내 얼굴에
날아들었다.
- ④ 우산이 없는 영호는 하릴없이 비가 그치
기만을 기다렸다.
- ⑤ 경호가 천연덕스레 거짓말을 하자 선생
님은 할 말을 잃었다.

☞ 뒷면에 계속

12. ㉠~㉣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3.2점)

- ① ㉠ 우리 수탉이 일방적으로 당함
- ② ㉡ 때리며 괴롭히는 행동
- ③ ㉢ 통명스러운 성격
- ④ ㉣ 인물 간 갈등의 고조
- ⑤ ㉣ 향토적 배경

《서답형 3》 이 작품에서 점순이가 ‘나’에 대한 불만을 표현하며, ‘나’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사용했던 방법을 3음절로 쓰시오.(3점)

13. 아래 제시된 글에서 서술자를 ‘옥희’로 설정한 의도로 가장 알맞은 것은?(3.3점)

“달걀 사소.”

하고 매일 오는 달걀 장수 노파가 달걀 광주리를 이고 들어왔습니다.

“이젠 우리 달걀 안 사요. 달걀 먹는 이가 없어요.” 하시는 어머니 목소리는 맥이 한 푼어치도 없었습니다.

나는 어머니의 이 말씀에 놀라서 떼를 좀 써 보려 했으나, 석양에 뻥히 비치는 어머니 얼굴을 볼 때 그 용기가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아저씨가 주신 인형 귀에다가 내 입을 갖다 대고 가만히 속삭이었습니다.

“애, 우리 엄마가 거짓부리 썩 잘하누나. 내가 달걀 좋아하는 줄 잘 알면서 먹을 사람이 없대누나. 떼를 좀 쓰구 싶지만 저 우리 엄마 얼굴 좀 봐라. 어쩌면 저리도 새파래졌을까? 아마 어테가 아픈가 보다.” 라고요.

- ① 3인칭 시점을 통해 등장인물의 심리를 잘 전달하기 위해
- ② 사랑손님과 어머니의 말과 행동을 객관적 입장에서 전달하기 위해.
- ③ 상투적으로 그려질 수 있는 어른들의 사랑을 아름답게 표현하기 위해.
- ④ 사랑손님과 어머니의 사랑이 이루어질 수 없는 비극적인 상황을 만들기 위해.
- ⑤ 사랑하는 마음을 드러내기 싫어하는 소극적인 어른들의 세계를 비판하기 위해.

[선택14~1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말소리는 그 말을 사용하는 집단이나 계층, 시간의 흐름 등에 따라 달라진다. 또한 같은 단어라도 말하는 사람의 습관이나 특징에 따라서 다르게 소리 날 수 있다. 그래서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다양한 발음 가운데 표준을 정했는데, 이것이 ‘표준 발음법’이다. 이 규정은 실제 발음을 따르되 국어의 전통성과 합리성을 고려하여 제정하였다. 전통성을 고려한다는 말은 문자 그대로 국어의 전통을 고려한다는 것인데, 대표적인 전통으로 소리의 길이를 꼽을 수 있다. 오늘날에는 소리의 길이를 구별하지 않고 발음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우리말은 전통적으로 소리의 길이에 대한 규정을 포함하였다. 그리고 국어의 합리성을 고려하여 정한다는 말은 국어의 규칙이나 법칙에 따라서 표준 발음을 합리적으로 정한다는 뜻이다.

(나) 다음으로 음운의 동화 현상과 관련 있는 표준발음법이 있다. 음운의 동화 현상은 자음끼리 영향을 주고 받는 경우와, 자음과 모음, 모음과 자음끼리 영향을 주거나 받는 경우가 있다. 먼저 자음끼리 영향을 주고받는 자음동화의 경우, ㉠비음화와 유음화만을 표준 발음으로 인정하고 있다.

(다) 국어의 발음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음운 변동에는 일정한 조건에서 반드시 일어나는 변동과 임의대로 일어나는 변동이 있다. 합리성 차원에서 규칙적인 음운 변동인 전자는 표준발음으로 인정하나 후자는 그렇지 않다.

14. 글(가)의 내용과 다른 것은?(3.4점)

- ① 의사소통을 원활하기 위해서 표준 발음이 필요하다.
- ② 표준 발음법은 실제 발음을 따르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 ③ 국어의 규칙이나 법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표준 발음을 정하였다.
- ④ 말소리는 말을 사용하는 집단이다 계층,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한다.
- ⑤ 오늘날 소리의 길이를 구별하지 않는 사람이 많으므로 소리의 길이는 표준발음법에 포함되지 않았다.

☞ 다음 장에 계속

15. 글(나)의 밑줄 친 ㉠의 예를 고르면?(2.8점)

- ① 한라산 ② 칼날 ③ 선로
④ 밥물 ⑤ 신라

16. 글(다)의 밑줄 친 필수적 변동에 해당하는 것은?(3.2점)

- ① 백로[뱅노]
② 순가락[숙까락]
③ 신문[심문]
④ 올곧이[올고시]
⑤ 아지랑이[아지랭이]

17. 밑줄 친 말의 음절의 끝소리가 다르게 발음되는 것을 고르면?(2.6점)

- ① 길 ② 피울 ③ 히울
④ 낮 ⑤ 시옷

18. 발음이 잘못된 것을 고르면?(3.2점)

- ① 왕십리[왕십니]에서 내려요.
② 만며느리[만며느리]가 되었어요.
③ 선생님과 종로[종노]에서 만나요.
④ 속리산[속니산]에 오르기로 했어요.
⑤ 선로[설로] 위를 걷는 것은 위험해요.

19. 자음의 축약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3점)

- ① 급히 ② 낙화 ③ 만형
④ 먹다 ⑤ 잡히다

20. 밑줄 친 말 중에서 탈락되는 모음의 종류가 다른 하나는?(3.6점)

- ① 약이 써서 삼킬 수 없다.
② 밥을 피서 그릇에 담았다.
③ 보안을 위해 문을 잠가 두었다.
④ 오랜만에 본 고향의 나무는 무척 꼳다.
⑤ 어제 열무김치를 담가서 이웃과 나누었다.

21. 다음 중 탈락되는 자음의 종류가 다른 하나는?(2.6점)

- ① 소나무 ② 차돌 ③ 아드님
④ 좋아 ⑤ 따님

22. 모음의 축약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3.7점)

- ① 나라를 세웠다.
② 풍경화는 잘 그렸니?
③ 줄을 맞춰서 걸어 주세요.
④ 새가 나니 감이 떨어진다.
⑤ 나는 국어 교사가 됐어요.

23. 구개음화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을 두 개 고르면?(4점)

- ① 자음이 모음에 영향을 받는 대표적인 동화 현상이다.
② ‘끝으로’를 발음할 때에도 구개음화 현상이 일어난다.
③ ‘미단이’를 [미다지]로 발음하는 것은 구개음화 때문이다.
④ ‘피붙이’는 구개음화로 음운의 수가 본래보다 줄어들어 발음된다.
⑤ 끝소리 ‘ㄷ, ㅌ’이 모음 ‘ㅣ’로 시작되는 실질형태소와 만나 ‘ㅈ, ㅊ’으로 바뀌는 현상이다.

24. 밑줄 친 단어의 표준 발음이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3점)

예쁜 무늬가 들어간 홀이불을 사러 간다.

- ① [무늬] - [혼니불]
② [무니] - [혼니불]
③ [무니] - [홀니불]
④ [무늬] - [혼이불]
⑤ [무늬] - [혼니불]

《서답형 4》 음절의 끝에 받침으로 오는 소리는 7개의 자음으로만 발음하는 것을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라고 한다. 밑줄 친 7개의 자음에 해당하는 것을 <보기>에서 골라 쓰시오. (3점)

<보기>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ㅎ, ㅊ, ㅍ

☞ 뒷면에 계속

[선택25, 서답5] 다음 표준발음법의 규정을 참고하여, 물음에 답하시오.

제11항 겹받침 ‘ㄹ, ㄴ, ㄷ’은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각각 [ㄱ, ㄴ, ㄷ]으로 발음한다.

다만, 용언의 어간 말음 ‘ㄹ’은 ‘ㄱ’ 앞에서 [ㄹ]로 발음한다.

제14항 겹받침이 모음으로 시작된 조사나 어미, 접미사와 결합되는 경우에는, 뒤엣것만을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한다. (이 경우, ‘ㅅ’은 된소리로 발음함.)

제17항 받침 ‘ㄷ, ㅌ(ㅌ)’이 조사나 접미사의 모음 ‘ㅣ’와 결합되는 경우에는, [ㅈ, ㅊ]으로 바꾸어서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한다.

[붙임] ‘ㄷ’ 뒤에 접미사 ‘히’가 결합되어 ‘티’를 이루는 것은 [치]로 발음한다.

제18항 받침 ‘ㄱ(ㄱ, ㅋ, ㆁ, ㄴ), ㄷ(ㅌ, ㅍ, ㅈ, ㅊ, ㅌ, ㅎ), ㅂ(ㅍ, ㅍ, ㅍ, ㅍ)’은 ‘ㄴ, ㄴ’ 앞에서 [ㅇ, ㄴ, ㄴ]으로 발음한다.

제19항 받침 ‘ㄴ, ㅇ’ 뒤에 연결되는 ‘ㄴ’은 [ㄴ]으로 발음한다.

제20항 ‘ㄴ’은 ‘ㄴ’의 앞이나 뒤에서 [ㄴ]로 발음한다.

25. 다음의 표준 발음 규정 제14항에 근거하여 바르게 발음한 것을 고르면?(3.9점)

- ① 비 온 후 하늘이 맑다[막따].
- ② 빛이[비치] 따가워 눈을 감았다.
- ③ 너는 어서 닭을[다글] 잡아 오너라.
- ④ 그 옷은 생각보다 값이[가비] 저렴하다.
- ⑤ 옛말에 젊어[절머] 고생은 사서도 한다.

《서답형 5》 표준 발음법 규정을 참조하여 밑줄 친 ㉠~㉤의 표준 발음을 쓰시오.

(8점, 각 2점)

- ㉠ 굳이 자동차를 살 필요가 있을까요?
- ㉡ 추풍령 매서운 바람을 이겨냈다.
- ㉢ 사랑이 있는 사회를 만들어 갑시다.
- ㉣ 내 동생은 밝고 예쁘게 자랐다.

<끝>